

# 팬들 시위 속 '선수 출신' 축구협 임원들 클린스만 거취 논의

### 아시안컵 리뷰·경질 여론 등 자유토론...정몽규 회장은 불참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축구협회 관계자 사퇴 등 축구 시위

대한축구협회 '경기인 출신' 임원들이 모여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승에 실패한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거취를 놓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대한축구협회 경기인 출신 임원들이 오늘 오전 협회에서 아시안컵에 대한 리뷰와 대회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의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번 주 예정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 앞서 축구협회의 경기인 출신 임원들이 모여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결과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정몽규 회장은 불참한 가운데 지난해 5월 부임한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출신인 김정배 상근 부회장 주재로 장외동·이석재·최영일 부회장, 마이클 필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이정민 심판위원장, 이임생 기술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

장, 전한진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해 64년 만의 왕좌 탈환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대회 내내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아쉬운 경기 내용으로 팬들의 비난을 받았다.

4강 탈락 이후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에서 활약하는 스타플레이어들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했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도 웃는 얼굴을 보였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일부에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남긴 유산을 클린스만 감독이 훼손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벤투 감독 역시 재임 시절 빌드업 축구와 이강인(PSG) 기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고집불통'의 이미지로 사퇴 압박을 받다가 월드컵 16강 달성 이후 '독심 사령탑'으로 여론이 바뀐 뒤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을 마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이 지난 8일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UAE) 사령탑으로 옮겼다.

벤투 감독의 UAE는 이번 아시안컵 16강에서 탈락했다.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론이 거세지자 축구협회는 12일 황보관 기술본부장과 필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축구팬들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승에 실패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강화위원장이 먼저 회동한 뒤 이날 경기인 출신 임원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아시안컵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촉구하는 축구팬들의

시위도 벌어졌다. 이들은 축구회관 앞에서 '클린스만 즉각 경질하라. 선임 배경과 과정 그리고 연봉기준 공개하라', '축구협회 개혁의 시작. 정몽규와 관계자들 일괄 사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었다. /연합뉴스

## 높이뛰기 이상혁 '라이벌' 바르심과 시즌 첫 맞대결 무산

### 바르심 슬로바키아 대회 불참 이상혁, 실내 시즌 기록 공동 1위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용인시청)과 무타즈 에사 바르심(32·카타르)의 시즌 첫 맞대결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바르심은 한국시간 14일 오전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에서 열리는 제30회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높이뛰기 대회에 불참한다.

3월 3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024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출전도 불투명하다.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바르심이 허리 통증 탓에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바르심은 주저 축에 "허리 부상 때문에 현재 독일 뮌헨에서 치료받고 있다. 의료진이 내게 휴식을 권했다"며 "글래스고 세계실내선수권대회 출전도 어려울 수 있다.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이상혁은 이날 주저 축이 마련한 기자회견에 '남자 대표'로 참여해 "멋진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0회를 맞는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는 바르심 섭외에 공을 들였고, 여러 차례 '바르심에 대회 출전한다'고 홍보했다.

이상혁과 바르심의 라이벌전은 육상계가 주목할만한 흥행카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르심의 불참으로 둘의 맞대결은 불발됐다.

이상혁은 건강한 몸으로 시즌 두 번째 실전을 치른다.

그는 지난 11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높이뛰기 대회에서 2m33으로 2위에 올랐다.

1위를 차지한 셸비 매규언(27·미국)의 기록도 2m33이었고, 2m33의 성공 시기도 3차 시기로 같았다.

하지만, 2m31을 이상혁은 2차 시기에서, 매규언은 1차 시기에서 성공해 순위가 같았다.

이상혁은 일단 2024년 실내 시즌 기록 순위 세계 공동 1위로 출발했다.

13일 현재 이상혁과 매규언, 다닐 리센코(러시아), 단 3명만이 2m33을 넘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3에 성공하며 은메달을 차지한 이상혁이 2m35를 넘어 금메달을 차지한 바르심과 인사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14일 오전 3시, 반스카비스트리차에서 이상혁은 시즌 두 번째 점프를 한다.

바르심은 불참하지만, 개인 최고 2m40의 기록을 보유한 안드리 프로첸코(우크라이나), 2m35의 마르코 파시노티(이탈리아) 등이 이상혁과 경쟁한다.

이상혁의 개인 최고 기록은 실내 2m36, 실외 2m35다.

2022년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에서는 2m35를 넘어 우승했다.

이상혁은 21일 체코 네흐비즈디에서 한 차례 더 실전을 치른 뒤 3월 3일 글래스고 세계실내선수권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이강인, 아시안컵 베스트11 선정

### 한국 선수 중 유일

한국 축구의 떠오르는 에이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AFC는 13일(한국시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시안컵 베스트 11 명단을 공개했다.

이강인은 3-4-3 포메이션으로 선정된 대회 베스트 멤버 중 오른쪽 날개 미드필더 자리를 꿰찼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이강인이 유일하게 베스트 11에 들어 체면을 살렸다.

베스트 공격수로는 결승전 페널티킥 헤트릭으로 득점왕(8골)과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한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를 비롯해 득점 2위 아이만 후세인(이라크), 야잔 알나야마트(요르단)가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로는 이강인을 비롯해 하산 알하이도스(카타르), 크레이그 구드윈(호주), 메흐디 가에디(이란)가 선정됐다.

수비수로는 루카스 멘데스(카타르), 알리 알블라이히(사우디아라비아), 압달라 나시브(요르단)가 뽑혔고, 골키퍼 자리는 최고 골키퍼상을 받



은 메달 바르심(카타르)에게 돌아갔다. 안방에서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한 카타르는 베스트 11에 4명이나 이름을 올려 기쁨을 더했다. /연합뉴스

## 축구 경기 도중 '날벼락'...인니 선수 벼락 맞아 사망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선수가 경기 중 벼락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PRFM뉴스 등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반둥의 실리왕기 스타디움에서 열린 FLO FC 반둥과 FBI 수방의 친선경기에서 수방 소속의 셉타인 라하르자(35)가 벼락을 맞고 쓰러졌다.

라하르자는 사고 직후에는 숨을 쉬었으나, 인근 사리앙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경기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오후 3시 30분께 갑자기 벼락이 라하르자를 내리쳤다.

사고 장면이 담긴 소셜 미디어 영상을 보면 충격에 쓰러진 라하르자를 향해 동료 선수들이 황급히 달려간다. 라하르자의 옷은 번개에 찢어진 상태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갑작스러운 비극에 소속팀 수방을 비롯한 여러 인도네시아 구단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경기 도중 선수가 벼락을 맞은 것은 낱 달 사이에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 자바의 보초네고로에서 열린 13세 이하 유소년 경기에서 한 선수가 벼락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이 선수는 20분에 걸친 응급치료 끝에 의식을 회복했다.

축구장 낙뢰 사고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

지난해 12월에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의 산투 안토니우 다플라치나에서 열린 아마추어 리그 경기에서 벼락이 떨어져 5명이 쓰러지고 그중 한 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영카
2관	영카
3관	소풍
4관	시민덕희
5관	데드맨
6관	[위드키즈]DMZ 동물 특공대, 시민덕희
9관	도그데이즈
7관	씨네카를 아가씨 극장판, 사이렌 스톤의 비밀, 서울의 봄
8관	씨네카를 아가씨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쿠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정송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